

학부생의 상담실습모델 연구: 블렌디드 방식

A Study of Counseling Practicum Model for Undergraduates : Blended Method

허요연¹

Myo Yeon Huh¹

요 약

본 연구는 기존에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한 상담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대면/비대면의 혼합 방식의 실습모델을 제안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실습의 목표는 상담현장에서 행정실무, 상담, 심리검사를 실습하고 슈퍼비전 받음으로써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익히는 것이며, 상담자로서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성숙한 상담자로 성장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실습은 상담현장의 행정 업무 실습, 자기이해를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경험, 특강, 그룹스터디, 사례회의, 슈퍼비전을 포함하였다. 프로그램은 온라인대학 4학기에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5개 지역 상담센터의 상담/임상전문가가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며, 실습담당교수가 전체 운영을 주관하였으며, 상담실의 행정업무와 심리검사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습생은 실습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도 및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심리평가와 개인 및 집단상담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실습과정에서 진로탐색 활동이 증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진로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비대면 방식의 효과성도 우수하여, 상담관련 특강과 스터디, 사례발표 참관 뿐 아니라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도 온라인 방식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연구결과와 관련된 의미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 포스트코로나, 상담실습, 학부생, 비대면상담, 혼합방식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on/off-line blended counseling practicum model, and is to verify the new model's effectiveness. The goal of the practicum is to familiarize oneself with the role as a counselor through administrative practice, counseling, and supervision experiences. This allows students to have a clear awareness of the counselor's career path and enables them to grow into a mature counselor. Special lectures, study groups, case studies,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psychological testing, and supervision were included. The practicum was conducted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ir 4th year at an online university. Counseling experts from 5 regional centers led students on-site and a professor provided group supervision. All procedures, except for the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sychological testing, were conducted on-line.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rated the program very highly overall, in terms of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In particular, they satisfied most with the psychological testing,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The students reported increased career exploration activities and detailed career plan formulation

¹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moy23@iscu.ac.kr

Received(May 9, 2022), Review Result(1st: May 24, 2022), Accepted(June 10, 2022), Published(June 30, 2022)



© 2022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ith a sense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effectiveness of the blended method was excellent. The on-line components were evaluated as having high effectiveness, not only for the special lectures, study groups, and case studies, but also for the individual and group counseling elements. The implications related to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Keyword : post-covid, counseling practicum, undergraduates, online counseling, blended method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적응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말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적응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상담분야에 대한 관심과 수요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다 [1][2].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변화를 돕는 상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전문성 확보와 우수한 전문상담자 양성이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상담자의 저변 확대 또한 심리학계의 중요한 이슈이다. 지금까지는 상담전문가 양성이 주로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상담직의 전문화 및 인력확대를 위해서는 학부과정에서 상담관련학과가 설치, 운영되어 상담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3]. 이에 따라 2000년대를 전후하여 일반대학의 학부 및 온라인대학에 상담학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4][5], 특히 온라인대학의 상담전공 학생들은 대다수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취업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이므로 다양한 분야에 상담심리학을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담자의 역할 및 활용 분야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상담은 상담자 자신을 도구로 활용하는 실천 활동이므로 실습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이론에서 습득한 상담기법을 적용하는 현장실습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상담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로 이론 중심의 지식 이해를 돕는 과목들이 많았고 실습 중심의 교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개설되어 있었고,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실습의 질에 대한 평가가 특히 낮았고, 실습 후 슈퍼비전, 교수님의 피드백 등은 상담전공 학부생이 학과의 개선점으로 꼽고 있었다 [2]. 실습의 질적 측면에서도 학부의 경우 단순한 현장실습인 경우가 많아 상담의 직접서비스나 슈퍼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6], 그 내용과 수준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상담실습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있었다 [2]. 특히 증가하는 온라인대학 상담전공생의 경우, 온라인 교육의 한계로 인해 상담현장에 대한 경험 및 사례경험, 슈퍼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따르는 불만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전문성의 확보의 핵심인 상담실습의 구체적 내용을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여 구성하여, 이를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한 블렌디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과정을 제안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양적으로 팽창한 상담자 양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학부 졸업 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전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상담실습모델 연구

학부생의 상담교육 모델과 관련하여 합의된 내용이 없으나, 학사 학위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등의 자격증을 통해 예상해보면, 전문상담활동 뿐 아니라 상담행정업무와 일반적인 대인능력 개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인간능력개발자 (human ability development model)로 추정해 볼 수 있다 [7]. 상담전공 학부생의 핵심역량을 도출한 연구에 따르면 [8], 개인 인성을 포함한 자기성찰, 상담자윤리 등 ‘태도·개인자질 역량’이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이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마음, 진실성, 그리고 과거에 미해결된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9].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상담자의 전문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상담자들을 위한 심리적 치료개입’인 ‘개인상담’이 있다 [10]. 실제 상담자는 자신의 개인상담 경험 속에서 분석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크게 경험한 것으로 보이며, 분석자와 상담자 사이에 맺어지는 수용적, 지지적 관계를 통해 치료자로서의 유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11]. 특히 온라인대학에서 성인학습자들이 상담을 전공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아성찰’ 혹은 ‘자신의 문제해결 및 성장’ 욕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동료학생들과의 집단상담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는 상담실습과정에 개인상담 및 슈퍼비전을 포함하여 자기이해와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실습에서 주목할 점은 상담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담에 대한 직접경험이 대학생활에서 매우 의미있는 활동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기이해 및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는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전문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때 [2][12], 접수면접과 심리검사 실습, 그리고 상담서비스 경험이 실습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습에 대한 슈퍼비전과 충분한 실습시간이 요구된다.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하는 실습이어야 전문적인 실무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슈퍼비전을 포함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석사수준이긴 하지만 CACREP를 참조할 수 있는데, 상담실습은 최소 100시간, 10주의 학기 중 실습과정 경험을 규정하고, 프로그램 교수나 현장 슈퍼바이저와의 개인 및 집단 슈퍼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13]. 이를 참고로 학부수준에 맞는 실습의 양과 종류, 내용 등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실습교육의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상담실습은 학부생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학부 졸업만으로 상담 전문가가 되는 길은 매우 협소하므로, 이어지는 상담전문가 훈련과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고 [14][15], 진로 모호성이나 취업압박, 정보부족 등으로 인

해 불안이나 압박감, 갈등 등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학부생이 많다. 이를 고려하여, 상담실습과정에서 진로탐색과 진로준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6]. 학부생은 강의실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내용을 상담현장에서 실습해봄으로써 실제로 상담이 자신에게 얼마나 적합한 분야인지 시험해볼 수 있고, 다양한 상담기법들과 대상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의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상담현장에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담자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경험해 볼 수도 있다. 이는 앞으로 졸업 후 자신의 상담자로서의 세부 목표 분야를 설정하고 추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유능감,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현장의 대면 경험이 핵심인 현장실습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은 오히려 온라인 방식을 통한 실습방식을 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습의 내용 중 대면 현장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담실의 행정적 실습 외에, 사례회의나 상담실습관련 특강, 슈퍼비전 뿐 아니라 개인 및 집단상담까지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 효과성이 검증된다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실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그간의 현장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전공의 학부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담의 현장실습 모델을 구성하였고, 이를 일반대학 및 온라인대학의 상담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상담/임상전문가 총 4명의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습을 담당할 5개 지역심리상담센터의 상담/임상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상담실습의 목표와 수준, 내용 등을 확정하였다. 실습은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반드시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 외에는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Zoom과 Google Meet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실습의 목표는 현장에서 행정실무, 상담, 심리검사를 실습하고 슈퍼비전 받음으로써,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이론과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익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상담자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인식을 가지며, 자신에 대한 이해 및 한계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상담자로 성장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실습의 3주체는 실습생, 실습기관의 실습운영 담당자, 실습과목 담당교수이다. 실습생은 상담관련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실습의 효율적 진행 및 질적 자료의 확보를 위해 선수 과목(심리학개론, 상담의 기초, 이상심리)을 이수하고, 전 과목에서 B+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였다. 실습담당자는 대학내 전국 5개 상담센터에 상주하는 상담/임상심리사 1, 2급 소지자로서 실습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운영하며,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 진로지도를 담당한다. 각 실습담당자는 10명 내외의 학생을 담당한다. 담당교수는 상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생 및 실습담당자, 전체 실습과정을 관리, 감독하며, 학기 당 2회 집단 슈퍼비전을 제공한다. 각 지도교수는 20명 내외의 학생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또한 실습생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학기에 95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으로 구성하였다(2개 학기 운영할 경우 총 190시간 이상). 이는 상담기관 현장 실습 90시간과 실습지도교수의

오리엔테이션 및 슈퍼비전 5시간을 포함한다. 첫 학기 실습내용으로는, 상담자로서의 경험보다는 개인 인성을 포함한 자기성찰, 상담자윤리 등 태도·개인 자질의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습생들에게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상담현장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업무와 절차를 경험하도록 하고, 검사 및 상담실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하기 위한 특강, 스터디, 사례회의를 포함하였다. 두 번째 학기에는 첫 학기 실습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상담서비스 경험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즉 상담현장에서의 행정 업무와 특강, 스터디, 사례회의 외에 실제 내담자에 대한 접수면접과 심리검사 실시 경험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대면이 필수적인 심리평가와 현장의 행정업무, 내담자에 대한 접수면접 외에는 모두 온라인으로 실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한 온라인대학 상담심리학과에 재학하는 4학년 71명을 대상으로 2020년 및 2021년 9월~12월에 걸쳐 상담실습 과정 중 첫 학기를 운영하였다. 이중 개인적 사정으로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해 실습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을 제외하고 64명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3.2 실습 모델의 평가

3.2.1 각 지역상담센터의 실습운영 담당자 평가

상담실습과정 완료 후 실습을 진행한 각 기관의 실습담당자와의 평가를 통해 진행된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 및 과정,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평가하였다. 발견된 문제점들은 향후 표준화된 상담실습모델로 발전시키는데 보완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3.2.2 실습에 대한 학생 만족도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습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와 ‘자기이해 및 성장에의 도움 정도’, ‘학업적 성취에 도움 정도’, ‘진로계획에의 도움 정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증진에의 도움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부 프로그램 별 만족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외에 비대면으로 진행된 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1점(매우 비효과적)에서 5점(매우 효과적)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또한 해당 대학에서 진행하는 학생의 정규 강의평가를 통해 실습과정의 질과 만족도를 평가하였으며, 이외에 주관식 질문을 통해 ‘현장실습을 통해 얻은 것’과 ‘가장 큰 성취경험과 달라진 점’, ‘프로그램 개선점’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3.2.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활동

진로관련 효능감의 향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Betz와 Klein, Taylor가 개발하고 이기학과 이학주가 타당화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단축형척도(CDMSE-S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17][18]. 이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의 5개 하위요인별로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이기학과 이학주의 연구에서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 .92, 사후검사 .96이었다.

진로탐색활동은 이은진이 제시한 척도를 사용했다 [19]. 이 척도는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직업 및 진학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를 탐색하거나, 교내외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는 등 5가지 진로탐색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질문하여 측정한다. 각 활동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은진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 .58, 사후검사 .83이었다.

척도들은 실습 전과 후에 실시한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자료분석에 SPSS Ver. 21을 활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각 지역상담센터의 실습운영담당자 평가

기관의 실습담당자는 대부분의 실습생들이 실습의 전 과정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었으며, 실습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강과 사례회의가 온라인으로 통합 운영됨으로써 다른 센터의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었고, 우수한 특강 및 사례회의를 제공한 상담전문가로 인해 양질의 교육훈련이 제공될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된 개인 및 집단상담에 대해서는 처음의 우려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형성이나 자기 노출, 그리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상담의 전과정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습생이 스스로를 탐색한 영역을 일상과 관계에 적용하며 성장을 경험하는 모습이 보람있었다고 보고하였다.

4.2 실습에 대한 학생만족도

실습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평균 4점을 크게 상회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에 도움을 받았으며($M=4.68$, $SD=.50$), 학업적 성취($M=4.62$, $SD=.58$) 뿐 아니라, 진로계획($M=4.52$, $SD=.67$)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증진($M=4.34$, $SD=.70$)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세부 프로그램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특히 심리평가(M=4.50, SD=.69)와 개인상담(M=4.41, SD=.75), 집단상담(M=4.49, SD=.78)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상담관련 특강(M=4.42, SD=.66) 및 담당 교수의 슈퍼비전(M=4.41, SD=.8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상담현장의 이해, 상담스터디, 사례 발표 참관도 만족도도 4점 이상으로 높았다.

[표 1] 실습과정 및 실습프로그램별 만족도

[Table 2] Satisfaction of the Course and Each program

항목		M	SD
참여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이었습니까?		4.48	.671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이 자기이해 및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4.68	.502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이 학업적 성취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4.62	.580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이 ‘진로결정’을 위한 진로계획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4.52	.671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나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4.34	.700
각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정도는?	개인상담	4.41	.750
	심리평가	4.50	.690
	집단상담	4.49	.780
	상담현장의 이해	4.09	.904
	상담관련 특강	4.42	.662
	상담관련 스터디	4.20	.800
	사례발표 참관	4.08	.989
	강의실에 탑재된 동영상 강의	4.08	.885
	담당교수의 슈퍼비전	4.41	.830
비대면으로 진행됨으로 인한 각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개인상담	3.80	1.011
	집단상담	3.63	.984
	상담관련 특강	4.09	.830
	상담관련 스터디	3.88	.882
	사례발표 참관	3.76	1.043
	담당교수의 슈퍼비전	4.03	.861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 인한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실습생들은 상담관련 특강(M=4.09, SD=.83)과 담당교수의 슈퍼비전(M=4.03, SD=.86)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상담관련 스터디(M=3.88, SD=.88), 개인상담(M=3.80, SD=1.01), 사례발표 참관(M=3.76, SD=1.04), 집단상담(M=3.63, SD=.98)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점수가 평균인 2.5점을 크게 상회하여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식 문항에 대한 반응을 보면, 개인 및 집단상담에서 대면으로 진행한 것과 유사한 자기이해, 성장 경험, 집단 역동을 보고하였다(‘집단원간의 공감이나 감동으로 바뀌는 듯한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일부 실습생의 경우에는 시공간적 편의성과 함께 비대면이어서 더 쉽게 자신의 문제를 오픈할 수 있었다는 등 온라인이 오히려 긍정적임을 보고하였다. 실습담당자는, 상담초기에는 비대면이 어색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고, 얼굴과 표정을 화면상에서 보면서 진행하여 특별

히 관계형성이나 상담의 진행에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진행 중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 상담시간의 지연과 이로 인해 집중도가 저하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대학에서 진행하는 학생의 정규 강의평가 설문지를 통한 실습과정의 질 및 만족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실습강좌 및 학과학생, 학부학생의 인원차가 현격하여 통계적으로 평균비교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으나, 진행된 실습의 3개 반 모두에서 동일학과 및 동일학부의 타 교과목에 비해 평가점수가 매우 높았고, NPS(Net Promoter Score, 순수추천고객지수) 및 NPS 점수도 동일학과 및 학부의 교과목 평균점수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강의평가 결과

[Table 2] Results of Course Evaluation

강좌	인원	전체 ¹			NPS ² (NPS점수) ³		
		강좌평균	학과평균	학부평균	강좌평균	학과평균	학부평균
2020-1분반	21명	6.31	6.15	6.14	8.75 (50)	8.44 (45)	8.40 (44.9)
2020-2분반	22명	6.45	6.15	6.14	8.75 (66.6)	8.44 (45)	8.40 (44.9)
2021-1분반	28명	6.46	6.09	6.10	9.08 (70.8)	8.35 (42.6)	8.36 (43.4)

1. 평가유형의 ‘전체’값은 교수활동, 학생자기성찰, 콘텐츠 영역에 대한 평가로, 총 17문항(1~7점)의 평균값임.

2. NPS: Net Promoter Score(순수추천고객지수), 0~10점까지 11점 척도 사용함.

3. NPS점수 = (9~10점 응답자비율) - (0~6점 응답자비율), 0점 이상이면 우수, 5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함.

또한 실습 후에 변화된 면과 실습과정을 통해 성취한 내용에 대해 주관식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가장 많은 내용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이해하고 성장하게 된 것이었다(‘나의 강점과 문제점에 대해 오픈하고 이해하게 된 것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성장한 것이었다’, ‘상담자의 역량과 전문성, 인성에 의해 내담자가 질적인 상담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그 무엇보다도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훈련하고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보살피는 일을 먼저 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보살필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다’). 또한 심리평가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평가의 구체적 방법과 해석방법을 알게 된 점을 성취내용으로 보고하였다. 진로와 관련해서는 다른 실습생들과의 상호작용 및 기관의 슈퍼바이저, 상담실 경험을 통해 어렵뒀했던 진로를 확고히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된 점을 들었다(‘상담사가 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해야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새로운 출발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투지가 생기는 것 같다’,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했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미래를 설계하는데 두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두려움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심리전문가를 향한 진로에 나 자신의 성향, 동기, 자질, 의지 등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 정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이외에 상담

을 통해 내담자의 입장을 경험해 본 것을 의미있는 경험으로 들었다(‘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자가 어떻게 공감, 이해, 라포를 형성하는지, 어떻게 내담자 문제에 관여하는지에 따라 내담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다른지 느껴졌다’, ‘상담에서 내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한 간접경험의 기회가 되었다’, ‘상담의 진행과정과 상담 회기별 달라지는 나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었다’).

이외에 실습과정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도록 하였는데, 가장 많았던 것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 시간, 그리고 실습의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였다. 또한 타기관에서 진행된 내용이 자신이 실습 받는 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표현이 있었다(풀배터리 심리검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부러움과 자신은 받지 못하는데 따르는 불만, 이와 관련된 실습내용의 표준화 필요성).

4.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활동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및 진로탐색활동 질문지를 실습 전과 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실습 전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활동 비교

[Table 3] Before and after practicum comparison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Activities

	실습전		실습후		대응표본 검정	
	M	SD	M	SD	t	p-value
진로결정자기효능감	97.02	10.74	99.36	14.62	-1.356	.180
진로탐색활동	10.36	2.79	12.41	4.63	-4.013	.00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실습 후 다소 상승하였으나, 실습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1.36$, $df=57$, $p>.05$). 반면 진로탐색활동은 실습 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4.01$, $df=63$, $p<.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상담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핵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학부생의 상담실습 모델을 구성, 제시하고, 최근 증가하는 상담자 요구에 따라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시도하여 그 효과성을 알아보려고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내용과 혼합 방식의 실습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효과와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에서 상담전공 학부생의 핵심역량을 도출된 상담자로서의 인성과 태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실습시간 및 슈퍼비전의 부족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탐색과 진로준비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8][16].

먼저 구성된 실습내용과 관련하여, 실습생들은 참여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효과성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자기 탐색과 문제해결을 위해 실시된 심리평가와 개인 및 집단 상담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실습생들은 자신 내면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해결해가면서 성숙,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실습생 자신에 대한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평가는 상담실습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자기 이해 및 한계 인식을 바탕으로 상담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습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또한 학생 상호간에 심리검사 실습과 상담센터의 행정적 업무를 보조한 실습내용에 대해 큰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더불어 특강, 상담스터디, 사례발표 참관 및 이에 대한 담당교수의 슈퍼비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행정실무, 상담, 심리검사를 실습하고 슈퍼비전 받음으로써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익히는 실습과정의 목표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실습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항 평균으로 환산하였을 때 실습 전 3.88, 실습 후 3.97로서 높은 수준이고, 또 실습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특성 상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실습 전부터 높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습 후에 극적으로 향상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실습생들의 주관적 보고에서 실습을 통해 자신의 성향이나 자질, 의지 등을 확인하고,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진로탐색활동이 실습 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습 목표인 ‘상담자의 진로에 대해 이해하고 뚜렷한 인식을 가지며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6].

또한 본 연구에서 시도하였던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의 효과도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실습담당자는 특강과 사례회의가 전 기관에서 통합 운영됨으로써 업무량이 감소된 동시에 우수한 특강 및 사례회의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다양한 교육훈련이 제공된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온라인 개인 및 집단상담에 대해서 상담의 전 과정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실습생들도 비대면으로 진행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효과성을 보고하였고, 특히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에서 대면으로 진행한 것과 유사한 자기 이해, 성장경험, 집단 역동을 보고하였고, 온라인의 시공간적 편의성과 자기개방의 수월성 등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하여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의 효과도 검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습과정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기관마다 실습담당자의 세부전공이 달라 심리검사 실시 등 통일성이 부족한 것을 들었는데, 이는 기관별 실습의 특성이기 때문에 심리검사 내용을 표준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학생의 요구를 미리 반영하여 원하는 기관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에의 집중도와 효과를 위해 온라인 진행의 기술적인 안정성 확보가 비대면 실습에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이외에 실습 시간 및 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는 학생들의 실습에 대

한 높은 욕구와 실습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두 번째 학기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반 대학이 아닌, 온라인대학에 재학하는 성인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전체를 대면으로 진행한 프로그램과의 비교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실습프로그램을 반복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구성한 실습프로그램이 실습의 목표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으며, 실습운영자 및 실습생의 만족도와 효과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본다. 특히 비대면 실습의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것은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로 들 수 있다.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온라인 방식의 편의성과 효과성을 활용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대학에 확대 실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상담현장실습의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온라인 개인 및 집단상담의 만족도와 효과가 확인된 점은, 온라인 상담이 향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쉽게 상담장면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연령층은 온라인 상호작용에 더 익숙하므로 앞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전체 실습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S. H. Lee, "COVID-19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60, no. 1, February 2021, pp. 1-1, doi: 10.4306/jknpa.2021.60.1.1.
- [2] N. J. Jo, M. H. Lee, I. G. Kim,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and Develop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3, June 2015, pp. 303-324, doi: 10.15703/kjc.16.3.201506.303.
- [3] D. J. Myung, "The Method and strategies for increasing the Professionalism of Counseling",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0.
- [4]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Universities in Korea", adiga.kr, <https://www.adiga.kr/EgovPageLink.do?link=EipMain>, (accessed April 1, 2022).
- [5] Korean Council for Online University, "Cyber Universities in Korea", CUinfo.net, <http://www.cuinfo.net/home/curri/navigationMajorArea.sub.action?gnb=32>, (accessed April 1, 2022).
- [6] H. K. Yu,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ship System for School Counselor Education in Korea and U.S.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vol. 17, no. 2, June 2007, pp. 59-80.
- [7] I. G. Kim, "A Study of Present State and Development Plan of Counseling Department in Undergraduat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2, June 2009, pp. 793-811, doi: 10.15703/kjc.10.2.200906.793.
- [8] N. J. Jo,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re Competencies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7, no. 3, June 2016, pp. 23-43, doi: 10.15703/kjc.17.3.201606.23.

- [9] K. O. Jeon, J. Ha, "The Influence of Counselor's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on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flection",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 36, no. 2, December 2015, pp. 41-53.
- [10] J. C. Norcross, J. D. Guy, "The prevalence and parameters of personal therap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psychotherapist's own psychotherapy*, J. D. Geller, J. C. Norcross, D. E. Orlinsky, Eds, New York, NY, USA: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65-176.
- [11] S. K. Yoo, M. H. Lee, E. H. Jo, "Characteristics and selection of educational analyst(Counselor's counsel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1, no. 4, December 2010, pp. 1411-1431, doi: 10.15703/kjc.11.4.201012.1411.
- [12] K. S. Kim, N. J. Jo, E. M. Choi, H. S. Ha, "Study on Mature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unsell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2, April 2013, pp. 775-799, doi: 10.15703/kjc.14.2.201304.775.
- [13] CACREP(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The 2016 CACREP standards", [cacrep.org, https://www.cacrep.org/for-programs/2016-cacrep-standards/](https://www.cacrep.org/for-programs/2016-cacrep-standards/), (accessed April 1, 2022).
- [14] N. J. Jo, M. H. Lee, I. G. Kim,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State of Curriculums in the Undergraduate Department of Counsel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4, August 2015, pp. 301-319, doi: 10.15703/kjc.16.4.201508.301.
- [15] M. H. Rønnestad, T. M. Skovholt, "The Journey of the counselor and therapist: Research findings and perspectives on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30, no. 1, September 2003, pp. 5-44, doi: 10.1177/089484530303000102.
- [16] K. M.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 of career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counseling maj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9, no. 4, August 2018, pp. 27-45, doi: 10.15703/kjc.19.4.201808.27.
- [17] N. E. Betz, K. L. Klein, K. 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4, no. 1, January 1996, pp. 47-57, doi: 10.1177/106907279600400103.
- [18] K. H. Lee, H. J. Lee,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2, no. 1, June 2000, pp. 127-136.
- [19] E. J. Lee, "Effects of the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4, no. 3, August 2002, pp. 621-636.